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32.59	↑ 코스닥	1137.68
	(+280.72)		(+35.40)
↓ 금리 (연고채 3년)	3.310	↓ 환율 (원·달러)	1468.30
	(-0.110)		(-27.20)

다가오는 주춤 시즌  
삼성·SK  
이사진 보수 정비  
04



## 유가 다시 90달러... 출렁이는 韓경제

(서부텍사스유)

美 트럼프 '중전 압박' 공언  
국방부는 "시작일 뿐" 입장  
정부 '언어 신뢰도' 따지며  
중동전쟁 대응책 마련 총력

극심한 혼란으로 시장이 연일 심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는 해답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이 '언어의 신뢰도'까지 따져야 하는 영역에 들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기자회견 및 공화당 연설 등에서 이른 시일 내 전쟁 종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대국 이란이 하메네이의 차남을 후계자로 내세우고 주변국 에너지 시설에 대한 타격을 지속·확장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중전 압박' 공언이다.

물론 물밑에서 서방과 러시아·중국 등이 중재에 나서 휴전에 이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이나 중전 논의에 화답했는지에 대해선 밝힌 바 없다.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전쟁의 결말은 우리가 결정



사실때 We Sell  
밤사이 국제유가 급락으로 1,500원 턱밑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이 1,470원으로 떨어진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전소에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95.5원)보다 24.7원 내린 1470.8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게다가 미 국방부는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입장을 사화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밝혔다. 자국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중전' 발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전투에서는 연막전술도 많이 쓰인다. 트럼프의 발언이 연막인지 여부는 시간이 판단한다. 그러나 10일 주요 시장지표는 그의 한마디에 일단 동요하고 출렁였다. 원유 가격과 세계 증시를 위락파락하는 모양새다. 일단 전날 100달러를 훌쩍 넘

었던 국제유가가 진정세를 보였다. 10일(한국시간) 오후 3시 40분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90달러 밑에서 거래됐다. 배럴당 110달러를 향해 치솟던 북해산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95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社告



### 메트로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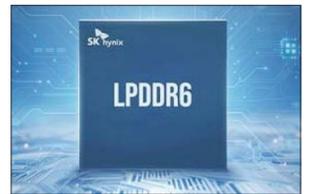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 ~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 SK하이닉스, 10나노급 6세대 공정 세계 첫 16Gb D램 LPDDR6 개발

저전압 특성... 하반기 공급  
전송 데이터량 33% 향상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6세대 D램 '1c LPDDR6'.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기가비트) 차세대 저전력 D램 'LPDDR6'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LPDDR6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으로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전압 특성을 갖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 CES 전시에서 해당 제품을 공개한 이후 최근 세계 최초로 1c LPDDR6 제품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제품을 공급해 인공지능(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c LPDDR6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모바일 제품에 주로 활용된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SK하이닉스는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최적화하기 위해 기존 제품인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을 개선했다.

이 제품의 데이터 처리 속도는 대역폭 확장을 통해 단위 시간당 전송 데이터량을 늘려 이전 세대보다 33% 향상했다. 동작속도는 기본 10.7Gbps(초당 10.7기가비트) 이상이며, 이는 기존 제품 최대치를 상회한다.

SK하이닉스는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길어진 배터리 사용 시간은 물론, 최적의 멀티태스킹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 중동 리스크 확산... 석유화학 재편 '안갯속'

이달 산단 사업재편 논의조율  
원료수급 불안 확대시  
정부-기업 재편방향 엿갈려

이란 사태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논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산업 재편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유가 상승과 원료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사업 구조 개편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사업 재편 논의를 이달 말까지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는 설비 감축을 포함한 사업 재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 단지에서는 여천NCC를 중심으로 설비 감축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가동을 중단한 여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여천NCC

수 3공장에 이어 2공장까지 추가로 멈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수 2공장과 3공장의 에틸렌 생산 능력은 각각 연간 91만 5000톤과 47만톤 규모로 두 공장이 모두 멈출 경우 약 140만톤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이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여천NCC의 에틸렌 생산량은 기존 약 230만톤에서 90만톤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울산 산업단지에서도 사업 재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에스오일(S-OIL) 등 주요 업체들이 구조 개편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업 재편 논의의 배경에는 악화된 업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석

유화학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업계 전반의 수익성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주요 6개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 손실은 총 1조 65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호황기에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던 산업 구조가 흔들리면서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천NCC는 최근 납사(나프타) 조달 차질로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는 등 정상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정세가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들도 대응 방향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우선처리...예결위 원장 진성준 추천  
▲이 대통령 "한화오션 노동 이종구조 개선 모범적 사례...상생문화 확산" /사진 뉴시스

▲정청래 "노동절 개칭에도 헌법엔 '근로자'...개헌 필요성"  
▲김근식 "장동혁, 2선 후퇴하고 보령·서천 '하방' 결단할 때"

▲윤희근 예비후보 "나는尹절연...다른 후보도 입장 밝혀라"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공천 면접 시작...“與와 호남 경쟁·영남 연대”